

설명자료

배포일시	2021. 7. 1.(목) 11:00 (총 4매)	보도시점	2021. 7. 1.(목) 11:30 이후
담당부서	전주 기상지청 관측예보과	담당자	과장 주형돈 기상전문관 양석종
		전화번호	063-249-3240

이번 주말 전북 첫 장맛비

- 3일 늦은 밤~4일 오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집중
 - 전북 최대 150mm 이상
 -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



[7월 3일 늦은 밤~4일 오전 기압계 모식도]

- 전주기상지청(지청장 김병춘)은 3일(토)~4일(일) 전북에 첫 장맛비가 내리고, 전북서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150mm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상세한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

[기압계 전망]

- 전주기상지청은 현재(7월 1일 오전) 동중국해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고 서쪽에서 접근해오는 저기압이 함께 영향을 주어 3일 오후 전북에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 최근 한반도 주변 상공에 머무르면서 정체전선의 북상을 저지하던 찬 공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정체전선이 우리나라로 북상해 3일 전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강수 전망]

- 정체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3일 오후(12~15시) 전북남부서해안에 비가 시작되어 늦은 오후(15~18시)에는 전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강수 집중) 정체전선 부근으로 저기압에 동반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며 비구름이 더욱 강해지는 3일 늦은 밤~4일 오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 (강우 강도) 특히 이 시기를 중심으로 고온의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는 전북서해안과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4일까지 총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 예상 강수량 (3일~4일) >

- 전북: 50~100mm (많은 곳 서해안과 지리산 부근 150mm 이상)

- (유의사항) 도시 내 소하천, 지하도, 우수관 및 상하수도 관거와 저지대 등 상습침수구역과 산간, 계곡에는 물이 급격히 불어나 범람과 침수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점검과 함께 비가 시작되기 전부터는 해당지역의 접근과 작업을 자제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후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정체전선이 다시 남하해 전북에는 4일 오후까지 비구름이 영향을 주겠고,
- 4일 오후 이후에도 3~4일 주기로 통과하는 저기압이 정체전선을 북상시키면서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 3일(토)~4일(일)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경로와 강도에 따라 강수량의 변동 가능성이 있고, 호우 집중지역과 집중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꼭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강풍 전망]

- 3일 오후부터 전북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35~60km(초속 10~16m)의 바람과 함께 순간적으로 시속 70km(초속 20m) 이상의 강한 돌풍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밝혔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풍속이 시속 55km(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강한 바람에 의해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건설현장, 비닐 하우스 등의 시설물 파손과 간판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 안전과 시설물 점검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풍랑 전망]

- 3일 서해남부전해상에는 시속 35~60km(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물결이 2.0~4.0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
- 또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전하였다.